

여수산단 환경·안전 관리 똑똑해진다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 업무협약... 2023년까지 130억 투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수국가산단에 2023년까지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 환경과 안전을 위한 똑똑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3일 여수시청에서 '여수국

가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여수시는 참여기관인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국토정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최선의 환경·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5월 선정된 스마트 그린산단의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85억, 지방비 45억 등 총 13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 따라 여수국가산단지 내 지하시설물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가스배관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보가 고도화된다. IoT(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한 대기유해물질 측정기, VOC 분석 시스템, 지능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측정기 39개소가 설치된다.

환경부의 화학사고대응시스템, 여수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국토교통부 스마트 통합 플랫폼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여수국가산단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나게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센터 구축이 잘 실행돼 여수산단이 환경·안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기반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3일 여수시청에서 여수시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여수국가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지난 3일 지리산 피아골에서 제45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를 맞아 단풍제례가 열렸다. <구례군 제공>

코로나 위기 극복·구례군민 안녕 기원

군, 지리산 피아골서 '단풍제례' 봉행... 이번 주말 단풍 절경

구례군이 지리산 피아골에서 제45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를 맞이해 단풍제례를 봉행했다.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문화 행사를 취소하고 구례군의 번영과 군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로 대신했다.

제례는 대한민국의 국토민안을 염원하고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자는 군민의 마음을 담았다.

이날 제례는 초헌관에 김순호 구례군수, 아헌관에 조재원 구례농업협동조합장, 종헌관에는 박영무 전 토지주택연구원장이 맡아 봉행한 작했다. 제례와 더불어 가을단풍의 정취를 느끼려는 등

산객과 군민들을 위해 나쁜 액운을 막아주는 살풀이춤 공연, 음복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피아골 단풍은 지리산 10경 중의 하나로 '산도 붉고, 물도 붉고, 그 속에 있는 사람까지 붉게 물든다'는 삼홍으로 유명하다.

특히 표고막터에서부터 삼홍소까지 이어진 약 1km 구간의 울긋불긋 단풍터널은 피아골에서도 최고의 절경으로 손꼽힌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리산 피아골 단풍은 연곡사까지 내려와 산 전체가 새색시 얼굴처럼 울긋불긋 물들어 가고 있으며 주말인 6일에는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 역전시장 '먹거리·놀거리' 군침 돈다

오늘~20일 금·토 저녁 '포차축제' ... 즉석 해산물 바비큐·공연·생태체험 등 다채

순천시가 5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금·토요일 저녁 역전시장에서 '역전의 달인! 싱싱&생생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축제는 역전시장의 장점을 살려 즉석 해산물 바비큐와 각종 먹거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역전시장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포장판매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보다 한층 발전시켜 먹거리 외에도 각종 공연과 원예·생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도입해 남녀노소 누구나 가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주민주

도의 축제로 그 의미를 더한다. 순천시 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상인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시장 축제로 만들어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 안전한 축제 운영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노후 저수지 7곳 내년 개·보수

121억 투입...재해 위험 요인 해소·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대

고흥군이 내년 121억 원을 투입해 재해 위험 요인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7곳의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제방 및 댐의 본체를 비롯해 취수시설 노후로 재해위험요인 상존과 적정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화 사동제 등 7개소의 노후 저수지가 내년 수리시설 개보수 신규 사업

으로 선정됐다. 군특 도비 97억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수로가 유실되면서 하류부의 많은 농경지가 매몰 피해를 입었고, 연접한 붕괴 확산이 우려된바 있는 대서면 금당2제와 노후도가 심해 적정 용수공급 어려움과 함께 붕괴 위험이 상존한 도화면 사동제를 보수할 예정이다.

또 과역면 가산·내백제, 남양면 화담·남양제, 대서면 중남제 등 모두 7개의 노후저수지에 대해서 보수에 들어간다. 개보수 공사는 2022년부터 2~3년에 걸쳐 총 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된다. 제체(제방 또는 댐의 본체) 그라우팅, 취수시설과 여수로 보수, 내제사석 등을 보강하면 159ha의 경지면적이 재해위험요인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동시에 공급돼 농업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미비해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국도비를 적기에 확보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곡성의 맛 추가요" 흑돼지 와사비 정식 개발

석쇠 구이·멜론 장아찌 등 구성

곡성군이 곡성읍권 대표 먹거리로 '흑돼지 와사비 정식' (사진)을 개발했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 곡성읍권 대표 먹거리로 개발한 흑돼지 와사비 정식의 시식회를 가졌다.

앞서 군은 지난 6월부터 지역 음식점 및 유명 셰프와 함께 만든 대표 먹거리를 개발해 왔다.

흑돼지 와사비 정식은 흑돼지 석쇠 구이를 메인으로 다양한 곁들임 음식으로 구성했다. 흑돼지 석쇠 구이는 특유의 탄력 있는 식감과 매콤달콤한 소스가 불맛과 함께 어우러졌다.

토란을 활용한 돌솥밥도 눈길을 끌었다. 토란대와 간장 소스를 활용해 달콤짭짤하면서도 간이 세지 않아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아 시식 참여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토란대의 아삭한 식감이 입안을 경쾌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찬은 토란 된장국, 멜론 장아찌, 와사비요겉절이 등으로 구성했다. 된장국의 깊은 맛은 집밥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장아찌와 곁절이의 산뜻함이 곁들여지면서 계속



먹어도 첫술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 음식을 개발하기까지 곡성군과 참여 업체 4개소(우리화관·우마루 플러스·본파·생선나라)는 셰프로부터 컨설팅과 레시피 구상 및 실습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흑돼지 와사비 정식을 개발했다.

이들은 시판에 앞서 더욱 완벽한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음식별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손님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대표 먹거리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곡성여행에 '맛'이라는 또 하나의 콘텐츠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박태 기자 pit@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 건넨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크코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